

95. 11. 15

LG EDS시스템 사내설문

직장인들은 혼자 일을 다 하는 척 떠벌리는 남자 사원과 평소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혜를 요구하는 여사원을 가장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정보통신업체인 엘지이디에스(LGEDS)시스템이 최근 회사 임직원 3백명을 남자와 여자 사원, 상사와 부하 직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'사라져야 할 꼴불견'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.

14일 이 조사결과 여자 사원이 보는 꼴불견 남자 사원에는 '혼자

이런 직장인 꼴불견 1위

혼자서 일 다한 것처럼 떠벌리는 남자

평소엔 '남녀평등' 어려울땐 '여자니까'

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'이 14%로 1위를 차지했다. 그 다음 '거칠고 야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사람'(9%), '공사를 구별 못하고 마구 반말을 하는 사람'(8%)차례로 나타났다.

또 남자 사원에게 비친 꼴불견 여사원에는 '평소 남녀평등을 주장

하다가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면 특혜를 요구하는 여사원'(11%)이 첫째로 꼽혔다. 이어 '업무시간에 수다를 떠는 경우'(9%), '이유없이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'(8%) 등의 꼴불견이 2, 3위를 차지했다.

한편 부하 직원에게 인기없는

꼴불견 직장상사에는 '책임은 아래 직원에게, 공은 자신에게 돌리는 상사'가 14%로 1위로 조사됐고, '윗사람 눈치보기에만 바쁜'(12%) 이 부형 상사나 '퇴근시간 임박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자신은 퇴근'('하는 암체형 상사가 뒤를 이었다.

반면 상사가 느끼는 꼴불견 부하 직원에는 '작은 손해도 보려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'이 14%로 수위를 차지했고, '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'(12%), '인사는 하지 않고 말뚱뚱 똥똥 판짓만 하는 부하 직원'('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.

윤영미 기자